



#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 푸른방송 기술관리팀 김형준 팀장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어느 해 보다 더 무더웠던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일선에서 누구보다 더 무더운 여름을 보내셨을 김형준 팀장님과 기술관리팀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다정하신 형준 팀장님! 책임감 있으신 모습과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늘 멋있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저도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언제나 형준 팀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박소진>



오른쪽부터 김영란 씨



## 명랑 발랄하고 당당한 영란 씨~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과장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게... 때론 언니 같고 때론 친구같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영란씨. 자신의 취향을 당당하게 말하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에 센스가 묻어나는 너와 함께 있으면 즐거워!!

화통한 성격임에도 마음이 환히 다 들여다보이는 순수한 면도 있어 가끔 놀라기도 합니다.

영란 씨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우리 서로 파이팅!!! 합시다.

<칭찬하는 사람:이영애>



#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기업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무료**로 연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 기사를 통해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니 지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